

圖書館人 이 본

司書教師와 讀書

尹 載 遠

(慶南高等學校 司書教師)

새로 購入한 新刊書籍을 檢收하여 그것을 分類하고 整理할 때마다 한 권도 빠뜨리지 않고 그 책을 다 읽으리라는 욕심이 불꽃같이 일어난다.

知性人으로서 누구나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마는 司書教師라는 分掌을 맡고 보면 책에 대한 愛着心이 유독히 더 강렬해지는 모양이다.

分類를 하기 위해 우선 그 책의 序文 같은 것을 읽고 있으면 은근히 스며드는 책장의 香氣도 좋거니와 한 字 한 字의 活字는 마치多情한 伴侶者처럼 겸손하면서도 정다우게 느껴진다.

그러나 책 한 권을 들고 이러한 三昧境에 빠져 있을 수는 없다. 分類와 整理의 차베를 기다리는 다른 책들을 위해 다음 作業으로 넘어가야 한다. 捺印, 북·포켓첩부, 거기에다 북·카아드를 비롯한 각종 카아드 작성……그리하여 그 다음 책을 다시 손에 들면, 그 책은 그 책대로의 獨特한 香氣와 親密感……이렇게 해서 司書教師의 讀書에의 意慾은 한결 부풀어 가지만 한다.

그러나 그 意慾은 마침내 한낱 물거품처럼 꺼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생각하면 부풀어 올랐던 그 돛수만큼의 안타까운 느낌을 抑制할 수가 없다. 다음 機會의 꼭 놓치지 않고 읽으리라던 마음가짐은 별 수 없이 奔走한 時間의 奴隸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끔 故友를 만나게 되면 서로를 살아온 자취를 주고 받고 이야기 하게 된다. 日前에도, 제법 規模가 크고 넓은 事業을 한다고 東奔西走하고 있는 親舊를 오랫동안 만난 일이 있었다. 무슨 이야기 끝에

『자네, 학교에선 뭘 맡고 있는가?』

하고 물기에 서슴치 않고

『도서관을 맡고 있네』

했더니 이 親舊 대뜸 몹시 부러운 듯한 表情을 지으며

『아, 그럼 자네 독서 많이 하겠군.』

하는 것이 아닌가.

하기야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司書教師와 讀書”이 얼마나 어울리는 말이며 얼

마나 密接하고도 切實한 關係인가!

그러나 그 親舊 앞에서 나는 잠시 당황한 가운데 열굴까지 붉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되던 안 되던 事業이랍시고 벌여 놓으면 잠자는 時間 外엔 도무지 책 한 권 손에 들어볼 時間이 없다면 筆者의 處地를 못내 부러워하던 表情이 한참후에 다른 話題로 해서 가시고 난 뒤에도 筆者는 오래오래 그 부끄러운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 권 한 권의 책을 整理 作業할 때의 불길같은 意慾이 새삼 솟아오르는 것이다.

知性人들은 누구나 책을 읽는다. 더구나 책과 더불어 生活하는 그리고 奉仕하는 司書教師는 두 말할 나위도 없이 많이 책을 읽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런 問題 앞에 오히려 얼굴을 붉려야만 하는 理由는 무엇일까? 筆者의 意慢의 탓일까?

하기야 讀書에의 意慾 그 自體는 어디까지나 意慾 그것일 뿐, 實際의 讀書은 아니다. 설혹 그것이 아무리 험차게 솟구쳐 오르는 불길같은 意慾이라도. 그러므로 여기에선 어떤 辯明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意慢의 탓만이 아니라는 點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筆者 自身만의 경우가 아니겠기에 감히 변명에 가까운 實情을 吐露하고자 하는 것이다.

司書教師도 自己의 授業 科目을 가지고 있고 또 時間 配當을 받고 있다. 그것도 결코 적지 않은 時間인 每週當 20時間을 넘는다. 하루 배 時間의 授業을 위해 教材도 準備해야 하고, 練習問題의 프린트 作業, 거기다가 試驗問題의 出題와 採點, 成績表 作成……. 거기다가 圖書館의 管理, 奉仕活動…….

이렇게 헤집지접하는 가운데 精神없는 生活을 해야 하니, 도저히 조용히 책을 들고 앉아 있을 時間이 있을 리 없다. 너무 길게 쓰면 되려 실없는 변명 같겠기에 더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러한 實情 때문에 가장 密接해야 하는 司書教師와 讀者와의 關係가 안타깝게도 제대로 達成되지 못한다는 것은, 가끔 司書教師의

會合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주고 받는 하소연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댈 수 없는 關係를 密着시키지 못한 채 이대로 持續해 나갈 수는 없다. 책을 읽어야 한다. 司書教師는 누구보다도 많은 讀書를 해야 한다. 이 글을 쓰면서 이 機會를 고맙게 생각하는 同時에 또 하나의 反省의 고비로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 다짐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司書教師라고 해서 무작정 그 많은 種類의 책을 다 讀破해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時間의 不足 때문에서가 결코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 反對의 現象이 假令 許容된다 해도 全知全能의 神이 아닌 이상, 읽어낼 도리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筆者는 司書教師가 읽어야 할 책은 대체 어떤 것이며 또한 어느 정도의 範圍로 잡아야 하느냐의 問題를 생각해 보고 싶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筆者 自身の 所見이기 때문에 이야기 중 군데군데 共通의인 納得을 얻지 못할 데도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마는…….

우선 어느 다른 책보다도 司書教師는 보다 낮고 効果的인 圖書館의 運營과 藏書의 運用을 위해서 “圖書館學”을 몇 권은 읽어야 한다고 본다. 이 方面에 對한 책은 日書나 洋書가 아니라도 斯界의 先輩들이 著述한 良書가 있어 우리에게 좋은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 이어서 圖書館의 運營에 對한 指針書와 讀書指導에 대한 책을 읽어야 하겠다.

現代教育에서 學校圖書館의 重要性은 누구나 強調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그 學校圖書館이 제대로 使命을 다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貽된 治裝에 불과한 것이다. 學校圖書館이 그의 使命이요 目的인 學生들에 對한 學習指導, 社會性指導, 餘暇指導, 職業指導, 地域社會에의 奉仕指導를 다하기 위해선 司書教師의 圖書館 運營과 藏書의 運用이 무엇보다 뒷받침이 되어야 할진대, 圖書館 關係의 책을 우선 必讀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明若觀火한 일이라 다시 더 말한들 소용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分野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 막상 눈을 돌려 놓고 보면 무엇부터 먼저 읽어야 할 것인지 마음을 걸잡을 수가 없다. 書架 앞을 천천히 지나가노라면 즐밋하게 꽃힌 책들이 저마다 個性的인 嬌態를 부리면서 손짓을 하는 것만 같다. 그 眞淑하고도 은근한 誘惑에 잠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라고 한다면 너무 誇張된 表現일까? 간혹 週末이나 休日같은 날 繁華街에 나가 보면 어렵지 않게 發見할 수 있는 光景이 있다.

장난감 가게 앞에서 어린애가 맨땅에 마구 덩글며 울고 있는, 밋지 않는 光景을. 지금 그 어린애는, 서

부영화의 주인공이 차는 쌍권총 장난감도 갖고 싶고 보기에도 날선한 유행형 자동차며 젓ტი기, 거기다가 하루종일 갖고 놀아도 싫지가 않을 것만 같은 복실장아치며 인형……이렇게 죄다 갖고 싶은 것이다. 당황한 어머니가 진담을 빼며 달래어 보지만 철없는 어린애는 알아들질 못한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끝내 어머니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나무란다. 그러던 어린애는 그만 울상이 되어 버리고, 거기에다 어머니가 정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안 사 줄테야 하고 달래는 수법을 슬쩍 바꾸어 불라치면 되려 역효과가 나고 만다. 어린애는 그만 땅에 펄쩍 주저앉아 두 다리를 버둥대며, 다 가질테야, 다 가질 테야 하고 마구 덩글기 시작한다. 그 복잡한 변화 과정에서 이번에는 어머니가 울상이 되어 버린다.

책의 種類가 많으면 많은 그 만큼, 읽고 싶은, 또 읽어야 하는 책의 수도 비례적으로 많은 법이다.

그러한 많은 書籍 가운데서 筆者나름대로 생각하면 우선 人間의 基本姿勢와 그 方向을 가리켜 주는 教養과 修養에 關한 書籍을 읽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보면 온갖 懷疑에 부딪칠 때가 많다. 그것이 심해지면 주위의 모든 것이 귀찮게 여겨지고, 親舊들의 多情한 이야기도 오히려 번거롭게만 들릴 뿐이다. 이럴 때 우리는 조용한 冥想의 世界에서 人生을 正確하게 認識하고 죽음과 삶을 沈沈의 狀態에서 直視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修養書籍을 펴 들어야 한다. 多幸히 近來에는 이 方面의 書籍出版이 活氣를 띠고 있고 또 그만큼 良書도 많다. 筆者는 圖書館을 찾아오는 學生에게나 또는 直接 教室에서의 授業時間에 恒常 이 方面의 좋은 책들을 많이 勸하고 있고 또 實際로 圖書館에서 讀書에 執念하고 있는 學生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읽는 책들을 一瞥하면 적지않은 學生들이 이 方面의 책을 읽고 있을을 發見하고는 저우히 흐뭇한 氣分을 느끼곤 한다. 社會의 秩序가 複雜하면 할수록 人間이란 自己自身の 姿勢와 位置를 더욱 올바르게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文學에 關한 書籍으로 넘어가야 하겠다. 많은 책의 다른 分野를 채쳐 놓고 먼저 文學으로 눈을 돌려야 하겠다는 데에는 두 가지의 理由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圖書館을 찾아오는 大部分의 學生들은 文學書籍을 耽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呼吸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또 그들의 質問에 恒常 正確하고 迅速한 應待를 위해서 司書教師는 文學에 關한 讀書를 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文學은 다른 어느 藝術分野보다도 密接하게 人生問題를 다루고 있다. 그 人生問題를 呑氣높은 藝

術의境地로昇華시켜 놓은 것이文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精神世界를 맑고 빛나게 해 주는 유일한手段인 것이다. 사람이란 딱딱한知識만으로構成된,機械的인無味乾燥한世界에서만 살 수는 없다.醇化된情緒가 부드럽고 정담게 엮힌社會를想像해 볼 때,文學의世界가 얼마나重要하고切實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文學書籍이라 하지마는 그範圍 또한 넓은 것이어서 무턱대고 마구 좃어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科學이라는學問과 달라서藝術이란創造의世界이기 때문에文學의世界 역시 끝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文學概論”을 읽어야 하겠다.概論書란 원래 깊이는 없지만은恒常 넓은 테두리를提示해 준다는 데에便利한點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는東西古今의名作들을讀破해야 하겠다.

말이 쉬워東西古今의名作이지 그것을 어찌 다 읽어낸단 말인가 하겠지만은 그래도司書教師에게 어쩔 수 없는必讀物이라고 고집부려 가면서라도斷定하고 싶다. 하다못해世界文學思潮를 따라 그 흐름이 굽이돌 때 꼭꼭 한두 가지씩 있는代表作品들을 읽는 것으로 그친다 치더라도名作을多讀하는司書教師가 되고 싶은 것이다.

圖書館을 찾아오는大部分의學生들이, 특히學校圖書館인 경우文學書籍을 찾고 있으며, 따라서圖書館의雰圍氣도 그러한情緒가 감돌고 있을 때 유독司書教師만이 그世界에서 벗어나孤獨하게도等外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筆者의見解대로 이끌어 다음은傳記와地理,歷史의分野를 읽어야 하겠고 그리고 나서 그 밖의學問分野에 손을 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學問의世界란 넓은大海요, 깊은深淵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손을 댈 수가 없다. 그方面을專攻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오히려 손을 댈다는 그自體가不可能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책을唯一한 벗으로 삼고 또 책과 더불어 그의使命을 다 하려는司書教師로서 아주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藏書의運用自體가所期의成果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結局 우리는概論書에依存하는 수밖에 다른道理가 없는 것이다.

여러가지學問의概論書를 좀 고생이 되더라도 읽어 넘겨 그輪郭을把握하여 무엇을 다루는學問이며,人間生活에 어떤關聯을 맺고 있는가, 얼마만한發達을 해 왔는가를 알아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司書教師는 이렇게自身の專攻分野가 아닌學問을讀書를 통해體驗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司書教師로서의精神的인姿勢와體面이 가다듬어진다는 것

을 생각하면實로 그 짐이 얼마나過重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기가時間的餘裕만充分하다면 비록司書教師가 아니라도讀書의必要性을實感하고 또實行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글의 첫머리에서呼訴한 그대로負加된授業의過重과 그 밖에處理해야 할 많은事務 때문에 언제나實行은實感을 따라 붙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한 가운데서나마司書教師에게는制限된時間을克服해서라도 책을 읽어야 하는條件과環境에 놓여 있다는 것을多幸으로 생각하고 약착스레讀書를 해야겠다는決意를 다시 한번 가져 보고자 한다.

지금은 가을! 정말讀書하기에 이 이상 알맞은季節은 없을 것이다. 해마다 이만한季節이 되면 사람들은 잊었던 기억이라도 되살리듯이讀書, 讀書에, 마음을 기울여 본다.

圖書館事務室에서 책을整理하고 있으면 가끔學生들이 찾아와서는“책을 어떻게 읽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고 물어오는 수가 있다. 가장平凡한質問이면서도 언제나 새롭게 들리는 말이라 얼른 대답할 수 없어 잠시 생각에 잠겨 보는 것이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司書教師는 스스로讀書하는 일만이 아니고 이와같이讀書의方法에도關心과指導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여러번 이問題에 대해 글도 썼고 또,圖書館에서,教室에서“效果的인讀書法”에對해說明도 해 주었으나 그럴 때마다 왠지 마음 시원한 설명을 못했다는 답답한 기분이었다.說明한 스스로의 마음이 이럴 땐 듣거나 읽는 쪽은 오죽할까 하는 답답함도切實히 느끼지만 사실讀書에一定한法則이 있을 수 없는 이상 칼로 벤 듯한斷言을 내리기는 없는 노릇이다.

책을 읽을 땐 읽기 이전의環境이나 마음의準備가 우선必要하다고恒常 생각한다. 어수선하고 시끄러운雰圍氣나 그런 마음으로는 얼 줄의 글을 읽어도 한 귀절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이니까.

책을 읽을 땐 언제나發見의 기쁨을 그目的으로 삼고 읽어야 할 것이다. 물론盲目的으로 책을 읽는 사람이야 없겠지만은 그저文字를 읽고 내용이나, 줄거리를理解하는程度가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主題의發見, 眞實의發見, 그리하여 거기서 기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讀書의效果는 올바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事實의發見, 새로운精神의發見, 또는 새로운知識의發見……讀書의目的은實로 이發見에 있는 것이요, 그效果는發見의 기쁨에 있는 것이다. 가령 한篇의小說作品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事件의展開나 줄거리의進行 그

自體에 汲汲하면서 책장을 넘긴다면 그 價値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作家는 分明히 그 作品 속에 한 사람의 새로운 人間型을 創造해 놓았을 것이다. 새로운 人間の 典型, 그것을 發見하지 않고는 그 作品을 다 “읽었다”고 自信있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多讀과 精讀이 問題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없다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인 것 같다. 多讀을 要할 때는 多讀을 하고 精讀을 要할 때는 精讀을 하면 되는 것인데 學生들이 종종 이 問題를 가지고 意見을 묻는다. 그러나 筆者는 高等學校의 圖書館을 맡고 있는 關係로 學生들에게 可及의 多讀을 勸하고 있다. 왜냐 하면 讀書할 수 있는 가장 旺盛期가 20세 前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多讀은 얼른 생각하면 깊이있는 讀書이기 때문에 읽을 그때뿐 머리에 오래 남는 것이 없다는 短點을 指摘받기도 하나, 우선은 머리에 남아 있지 않아도 수많은 책을 多讀하고 나면 먼 뒷날 언젠가는 自然히 한 人間の 人格으로 形成되어 나타나고, 장차 어느 學問으로 떨어나가든 그 學問의 든든한 基盤이 되어 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多讀의 必要性을 力說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專門分野의 讀書는 두말할 나위없이 精讀主義를 擇해야 하겠지만 多讀은 人生全般에 걸쳐 鳥瞰의인 影響이 미치는 것이므로 身體의으로 疲로에 걸리어 낼 수

있는 青年期의 多讀은 꼭 必要하리라 생각한다.

〈司書教師와 讀書〉라는 命題을 받아 글을 쓰긴 했으나 아무래도 系統이 흐린 글이 되고 말았다. 筆力이 鈍한 탓이리라. 그러나 이 글을 쓰고 나서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司書教師의 職務가 다른 어느 分掌의 教師보다 어렵고 무겁다는 點이다. 거기다가 疲로움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른 同僚들은 마치 時計바늘을 눈으로 떠받쳐 올리다 싶이하여 다섯 시간 되면 퇴근해 버린다. 圖書館 事務室 창녀머로 내다보이는 그들의 뒷모습은 참으로 부럽다. 그러나 司書教師는 하루네 시간의 수업으로 疲로해진 몸과 마음을 다시 閉靜時間인 7時까지 圖書館을 찾아온 學生들에게 提供하지 않으면 안 된다. 奉仕精神을 바탕으로 하는 司書教師가 되어야 한다고 訓練은 받았지만 저렇게 모두 훌륭히 退勤하는 뒷모습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괴롭다.

그러나 한 줄의 글이라도 더 읽겠다고 열람실을 꺾매운 學生들의 모습으로 눈을 돌리면 괴롭던 마음은 한결 호젓해진다. 거기에 남모를 唯一한 즐거움이 있어서일까?

가을은 해만 저면 스프르 氣溫이 내려가는 季節이다. 밤 7時, 圖書館 문을 잠그고 校門을 나서면 날씨는 싸늘하고 하늘엔 별들이 총총거린다. 무겁고 疲로한 발걸음을 이 遲刻인 歸路에 옮겨 놓으며 司書教師만이 느끼는 가냘픈 즐거움을 느껴 보는 것이다.

(5面에서 繼續)

文主義時代의 惡習을 結局은 「매피스트·파우스트」가 救濟해준것이라면 이제는 우리도 겨우로 너무나 現實의이고 너무나 政利의인 現實에 있어서는 한번 아늑한 「파우스트」의 書齋속으로 들어가는것이 生을 한층 더 보람있게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結局 책으로 대변되는 思索의 世界와 直接 金力으로써 尙징되는 現實의 世界는 어느쪽이 더 有利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精神的인 것도 重要하지만 物質的인 直接 筋肉이 움직이는 뜨거운 피가되는 現實도 重要한 것이다. 어느쪽을 버리고 어느쪽을 擇하느냐고는 말할

수 없다. 두개가 다 필요한 것이다.

「앙드레·저드」처럼 行動主義의 思想을 爽爽하게 할때에 「너의 冊들을 불살으게 하고 江의 모래가 아름답다고만 읽을것이 아니라 그것을 直接바로 느껴라」고 하던 그 時代와는 反對의 口號로써 너무나도 感覺과 一致되어버린 官能萬能의 時代에 있어서는 한번 조용히 自己를 생각할수 있고 生의 열매를 맺을수 있게하는 파우스트」의 그 음침한 書齋가 우리들에게는 必要한 것이다. (이 글은 第11回 讀書週間을 맞아 지난 9月 25日 南甲市立圖書館에서 開催한 讀書세미나에서 發表한 것을 간추린 것임)

廣 告

韓國圖書館關係文獻目錄 (1921—1961) 高厚錫·洪淳英 編

韓國雜誌目錄 (1896—1945) 崔筍子 編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發行
(208p 菊版 洋裝 更紙 裝 350원)

이 目錄은 梨花女大圖書館學科 大學院 卒業生들에 依하여 編輯된것으로 解放前後 40年間 여러곳에 散在한 定期刊行物 記事中 圖書館關係文獻을 蒐集目錄化하였고 解放前 50年間의 韓國에서 發刊된 雜誌의 目錄을 收錄한 것이다.
(販賣處 梨大圖書館)